

# 남원서 만나는 꽃빛 한복의 향연

시, 16~18일 전국 7개 한복도시 동시 '한복문화봄주간' 맞아 한복패션쇼·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

남원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김태훈 원장)와 전국 7개 한복도시(남원, 전주, 충주, 곡성, 진주, 경주, 상주)가 동시에 진행되는 '2021 한복문화봄주간'을 맞아 꽃빛 한복의 향연을 16일부터 18일까지 풀어낸다.

남원시 예루원 특설무대에서 한복의 거점이 되는 화인당(花人堂)의 개관을 김혜순 한복명장과 두댄스(대표 홍희영)가 펼치는 공연형 한복패션쇼인 '광한정인(廣寒情人)'으로 알린다. 이 기간에는 전통혼례체험 시집가는 날, 한복과 이색공연의 만남 한복시청회,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전시중인 Dialogue, 상춘곡 특별공연 '봄꽃의 시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화인당은 광한루원과 남원예촌을 배경으로 한복과 함께 한 폭의 그림이 되고 싶은 관광객의 니즈를 반영한 한복체험관으로, 김혜순 명장의 손길이 담긴 한복과 남원만의 특별한이 담긴 전국꽃문화축제 수상작이 어우러진 체험형 스튜디오 등 다양한 이색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17일 개관 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한복문화도시 남원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해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복이 예쁘지만 불편하고 생활한복으로는 색감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한복에 새로운 해석을 더해 탄생한 '화인날개'가 이번 남원 '화인당'에서 선보이며, 이번 행사는 유



남원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전국 7개 한복도시가 동시에 진행되는 '2021 한복문화봄주간'을 맞아 꽃빛 한복의 향연을 16일부터 18일까지 풀어낸다.(사진은 남원에서 만난 광한정인)

튜브 채널 '남원의락'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복이 불편하다는 남지친구와도 딸 바보 아빠와도 쉽게 할 수 있는 한복체험 '이리 오너라! 입고 놀자'가 해시태크(#) 이벤트 참여자에게 1일 50명 한정으로 4월 30일

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남원시 양인환 관광과장은 "한복주간에는 17일부터 한복착용자는 대표관광지 광한루원의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올해의 프로그래머 공개

'J스페셜' 주인공 배우 류현경 선정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새롭게 선보이는 특별 섹션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배우 겸 감독 류현경을 선정, 발표했다.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매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을 '프로그래머'로 선정해 자신만의 영화적 관점과 취향에 맞는 영화를 선택, 프로그래밍하는 섹션으로 올해 첫선을 보이며, 향후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섹션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021년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의 포문을 열어 줄 주인공은 배우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현경이다. 1996년 드라마 '곰탕'으로 데뷔한 후 영화 <신기전(2008),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만신(2014), <나의 절친 악당들(2015) 등 스크린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 온 류현경은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2017), <기도하는 남자(2020) 등 독립영화는 물론, 최근 개봉한 <아이(2021)까지 잇달아 주연작을 내놓으며 관객에게 성큼 다가갔다. 뿐만 아니라 류현경은 단편영화 <광태의 기초

>(2009), <남강도(2010) 등을 연출해 국내 유수의 영화제에서 선보인 감독이기도 하다.

류현경 프로그래머는 총 8편의 장·단편 영화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송예진 감독의 <환불(2018), 권예진 감독의 <동아(2018), 자신의 출연작인 김래원 감독의 <이사(2014), 연출작 <남강도(2010)까지 단편 4편을 선보이고,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1998),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2016), 배종대 감독의 <빛과 철(2020), 주연작인 김현탁 감독의 <아이(2021) 등 장편 4편을 소개한다. 또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상영작의 극장 상영 직후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J스페셜클래스'의 모더레이터로도 활약할 예정이다. 전주컨퍼런스 '여성, 배우, 감독: 이들이 관객과 만나는 방식'에 패널로 참석해 본인의 경험담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상영작이 확정되면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최종 상영작이 모두 결정됐다. 올해의 초청 작품은 48개국 194편으로, 장편 120편, 단편 74편이다. 이 중 해외영화는 109편, 한국영화는 85편이다. /양은경 기자

## '하늘에서 내리는 천상의 소리'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30일 '하모니 with 파페라'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프로그램으로 '하모니 with 파페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김제시가 주관하는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으로 마련했다.

첫 곡으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자연을 노래한 곡으로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아름다운 나라'를 따뜻한 봄날에 어울리는 팝 소프라노 '아리현'의 음성으로 만날 수 있으며, 이어서

천상의 하모니 아카펠라 그룹 '나린'의 '나이가온 OST', '조성석의 아로하' 등 대중적이면서도 특색있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 간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20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춘향전-몽룡을 기다리며' 서울 공연

국립국악원 예약당서 23·24일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3일 19시 30분과 24일 1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대표공연 창극 '춘향전-몽룡을 기다리며'를 무대에 올린다.

국립민속국악원은 각 지역(남원, 진도, 부산)의 국립국악원 중 유일하게 창극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1992년 개원 이래 30여년간 다양한 창극작품을 제작해 총 385회 공연을 개최했다.

특히 남원을 배경으로 하는 '춘향전'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개 창극 작품으로 제작해 전국에서 225회 공연으로 선보인 바 있다. 올해는 창극 '춘향전'이 지닌 원작 본래의 맛을 살려 서울 국립국악원 초연을 시작으로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제3회 대한민국 관놀이'의 개막작으로도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작품은 최근 화려한 영상과 첨단 무대 기술을 접목해 현대화된 창극과 달리 창극 본연의 맛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판소리와 '춘향전'의 서사구조에 중심을 두고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갈등과 대립, 부조리가 넘치는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국립민속국악원 류기형 예술감독이 직접 대본과 연출을, 이태백 목원대학교 교수의 음악 구성과 채향순 중앙대학교 무용전공 교수의 안무로 새롭게 구성된 창극이며, 관람은 전석

2만원(문의 02-580-3300)으로, 국립국악원 누리집(www.gugak.go.kr)과 전화(02-580-3320)로 예매할 수 있다.

왕기석 원장은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치신분들의 몸과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22일 제141회 정기연주회 '명작스페셜 11' 공연

음악을 통해 군산시민들의 면역력과 정서적 활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군산시립교향악단이 '봄은 멀리, 마음은 더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춘 기획으로, 오는 22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정통 클래식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명작스페셜 11'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뛰어난 지휘테크닉으로 협연자

를 충분히 배려하고 작곡가의 곡에 숨겨진 열정을 잘 이끌어내는 객원지휘 김지환의 지휘로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클래식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베토벤의 7번과 생상의 죽음의 무도, 그리고 모차르트 플루트협주곡 2번이 연주된다.

이 날 협연에는 청중을 사로잡는 정열적이면서 완숙한 연주, 완벽한 테크닉, 서정적이면서 우아한 연주 등의 격찬을 받은 바 있고 국내외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과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군산대학교 플루티스트 이현주 교수가 협연한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